

#### 4. 중국인삼 주산지(길림성)의 경영관리, 유통, 소비 및 수출입 실태

##### 가. 인삼재배 경제성 분석

###### (1) 중국의 인삼재배 경제성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은 소득을 얻으려는 것이다. 기업 활동의 핵심적인 목표는 이윤(순수익)을 많이 얻으려는 것이다. 경영조직에 있어서 반드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윤극대화의 가정은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품의 생산비는 임금, 지대, 이자, 물재비용, 자본비용, 감가상각, 기업인의 보수, 특허 사용료, 조세 및 보험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원료비, 노동과 자본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농산물의 생산비는 공산품의 생산비와는 달리 자연조건에 의한 수확의 풍흉(豐凶)변동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다르다. 풍년에는 생산비가 낮아지는 반면 흉년에는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흉년에 더 들어가는 요인으로 병충해의 관리와 강우량에 따른 물 관리의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풍·흉년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물 단위당 생산비를 구하려면 경지면적 단위당 생산비를 경지면적 단위당 수확량으로 나누어 보면 편리하다. 즉, 생산물 단위당 생산비=경지면적 단위당 생산비÷경지면적 단위당 수확량이 된다. 이 식에서, 경지면적 단위당 수확량은 자연조건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지만, 경지면적 단위당 생산비는 비교적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누년비교와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농업은 주로 가족경영이며, 가족노동력, 소유경지,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비용을 모두 화폐액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생산비는 구할 수 없다.

평가방법으로는 고용임금, 지대, 차입자본의 이자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평가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생산비가 크게 변화한다. 그리고 농업에서는 퇴비와 구비, 사료 등을 자가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비용 중에는 시가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 자가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여 생산비에 가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생산비용의 계산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몇 가지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토지사용제가 아니어서 토지자본이자(토지용역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여기에 계산되고 있는 토지비용은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소작료를 계산할 뿐이다. 이는 토지의 공유제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계산방법이며 모든 작물의 생산비 계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보인다. 둘째, 노동비용의 계산에서 자가 노임과 고용 노임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계산되어 있다. 자가 노임은 가족노동의 평가와 경영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기회비용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고용 노임은 실제로 작물재배의 당년도 지불된 평균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가 노동 노임의 평가는 어느 작물이나 당해 연도에 일정하다. 다만 고용 노임에서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셋째, 자본 용역비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자본 용역비는 토지, 차입금, 운영 자본에 대한 이자이다. 토지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항목에 들어있지 않고 차입자본에 대한 이자는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없기 때문일 수 있으나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 조사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들어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한국이나 일본에서 조사되고 있는 생산비 내용과 다를 수 있어 이해가 요구된다.

표 51 과거 15년 간 吉林省의 주요 연도별 지역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고용일수 그리고 중간재비 등을 보여준다. 집안, 白山, 撫松縣은 吉林省의 대표적인 인삼주산지이며 재배규범화 표준화를 시도하는 지역이다. 생산량은 撫松縣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완만한 증가세를 나